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세계인의 날 기념식



법무부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소장 김진영)는 지난 26일 제12주년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사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광장에서 개최된 기념식에는 광주·전남 거주 외국인유학생, 근로자 등 2000여명이 참석했다.

서광주우체국 '이동 우체국 작은대학' 졸업식



서광주우체국(국장 윤치성)은 지난 3월부터 10주간 운영한 '이동 우체국 작은대학' 졸업식을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부터 운영한 '이동우체국 작은대학'은 기존의 우체국 작은대학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강사가 직접 지역 내 아파트 단지의 경로당, 도서관 등을 방문해 주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남공동모금회 '사랑의 집짓기' 지원 협약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허정)는 최근 전남의용소방대연합회(회장 안훈석)와 전남도 주거환경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집짓기' 지원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27일 밝혔다. 장흥군 소방교육대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안훈석 전남의용소방대연합회장을 비롯해 22개 시·군 연합회장과 회원, 직원 등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했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 빌딩 9층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33 FAX 062-222-4938, 222-4918

화촉

- ▲이정호·이숙희씨 장남 대주군, 문극수(세무사사무소 사무장)·한미경씨 차녀 예진양=6월 1일(토) 낮 12시 광주시 광산구 드메르웨딩홀 2층 CN홀.
▲장덕신·신숙희씨 장남 창희군, 범진천(화물회사 대표, 전 우리은행 지점장)·오희숙씨 장녀 수민양=6월 1일(토) 낮 12시 광주시 광산구 드메르웨딩홀 4층 라비엔홀.
▲니영주·김미덕씨 차남 병희군, 이권수(고운건설회장)·김숙씨 장녀 미지양=6월 1일(토) 낮 12시 30분 무등파크호텔 4층 디아망홀.

중친회

- ▲재광화순군향우회(회장 최재훈) 제43회 정기총회=28일(화) 오후 6시30분 광주 서석중·고등학교 유당홀 010-3709-3038.
▲동래정씨광주전남회(회장 정진원) 정기총회=31(금) 오전 11시 무등고시학원 앞 뚝이레회관 010-3609-2523.

알림

- ▲청소년전화062-1388=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시간 전화상담.
▲일기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 사용할 경우 062-1366.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 상담&주간프로그램 운영=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대상 062-526-3370.
▲북구열린마음 상담센터 무료상담=정신건강&중독 무료상담(음주·우울·불안·스트레스·치매·인터넷)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 무료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마음건강추진의운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등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5시 무료상담 062-654-3802.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

- 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입관용품무료지원, 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습관성도박자 및 가족대상 전문상담 치료 및 병원위탁 무료 치료=성요한병원(6개월 무료입원 및 통원치료) 상담시간 월·토(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062-527-3400, 3403.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지역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방과 후 돌봄 이용안내=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보호·교육·정서지원·문화체험·식

- 식제공 등 제공 062-522-9976.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법률서비스 '법률클리닉' 무료 상담=민사·형사 소송 이전 법률상담과 법교육, 조력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 지원 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 061-285-1161.
▲화순 호사랑 노인복지센터 무료 방문=중풍이나 치매 등의 병으로 고동행는 화순 거주 노인들의 무료 방문 목욕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 061-373-8865.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만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062-232-4953.
▲한국범죄방지지도사 자격증 무료 취득·성별, 연령 제한 없음. 광주시 금남로 5가 169번길 호남본부 062-515-7521.

- 연습 및 경기 진행, 문의 정원타이거즈 감독 010-9092-0343.
부음
▲박영안님 별세, 이근호·민호·필호·숙현·미현씨 모친상, 정영심·김순금·김명숙 씨 시모상, 민경양·김재섭씨 빙모상, 발인 28일(화) 오전 8시30분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2분향소 062-231-8902.
▲문정춘님 별세, 허용·허경·허준·허미리향사 모친상, 발인 28일(화) 오전 9시30분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1분향소 062-231-8901.

나이 90에 통역 봉사 ... "광주수영대회 기다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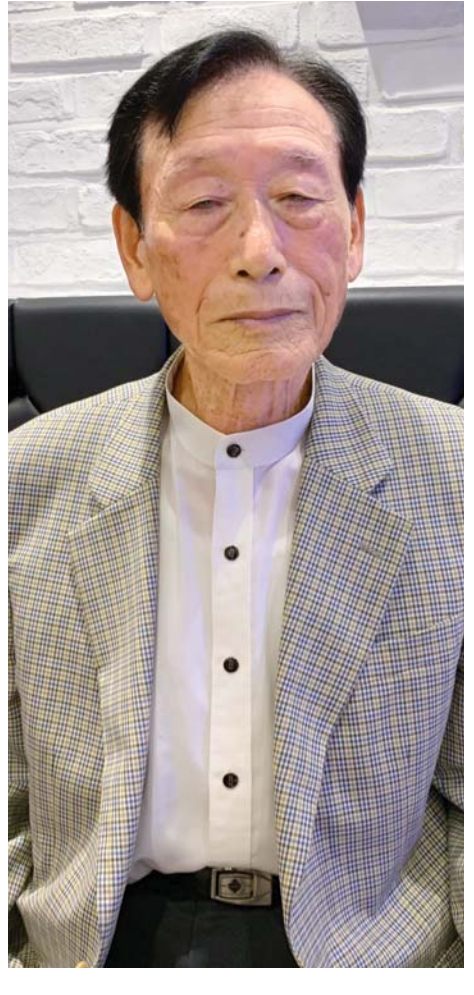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최고령 자원봉사자 김종식 씨

도서관에서 책·신문 읽기 취미 원어민 수준 일본어 구사 광주U대회서도 봉사 활동 선수촌 등 통역 832명 배치

"광주에서 열리는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헌신하는 마음으로 봉사할 예정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체력이 허락한다면 생의 마지막까지 봉사하고 싶습니다."
김종식(90)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자원봉사자는 "2015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이어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대회에서 통역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영광"이라고 말했다.
"매일 아침 광주시립무등도서관에서 신문과 책을 읽는 게 삶의 낙입니다. 수영대회가 개최될 7월이 기다려져요. 하고 싶은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스트레스도 사라집니다."
1929년생, 만으로 90세인 김종식씨는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자원봉사자 중 최고령이다. 그는 조리있는 말투, 검은색으로 염색한 머리, 100m를 걷는 데 20여초밖에 걸리지 않는 체력을 자랑하며 언뜻 보기에 70대 중반으로 느껴졌다. 김씨는 건강 비결로 마음 편하게 살고 있는 것을 꼽았다.
김씨는 "5년전부터 노인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시내버스 정류장을 정리하는 일을 하고 있다"며 "매주 월·수·금요일 3시간씩,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일하지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힘들지도 않고 재미있다"고 말했다.
영암이 고향인 김씨는 일제강점기 초등학교(옛 국민학교)에서 자연스럽게 일본어를 터득했다. 하지만, 집안 사정으로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했다.
공부에 한이 맺혔던 그는 비록 학교에 다니지 못했지만 일본에 사는 친척의 도움을 받아 일본어 원서와 신문을 통해 매일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다. 그 덕분에 원어민 수준의 일본어를 구사한다.
김씨는 면접을 통해 이번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일본어 통역자원봉사자로 선발됐다. 최종선발된 외국어 통역 자원봉사자는 모두 832명으로 영어 678명, 일본어 35명, 프랑

스어 20명 등이다.
김씨가 본격적으로 일본어 통역 봉사활동에 뛰어 든 것은 86세 때부터다. 광주시 북구 문흥동에 살고 있는 김씨는 지난 2015년 광주에서 열린 유니버시아드 대회 일본어통역 봉사자로 활동했다. 일본어 실력이 뛰어난 김씨를 주위에서 알아본 지인의 권유로 통역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그는 "당시 통역을 도왔던 일본인이 일본사람이 아니라고 몰았을 때 정말 깜짝 놀랐다. 그때의 좋은 기억을 잊지 못해 다시 자원봉사에 지원했다"면서 "늙은 사람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젊은이도 하고 싶은 일을 하며 희망을 갖고 살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주위에서 이제 쉬라고 하지만 아직은 더 일을 하고 싶다"며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외국인들에게 불편함이 없는 봉사를 펼쳐 이들이 다시 광주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7일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광주시 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개최했다. 대학생, 주부, 군인, 외국인 등 3126명의 자원봉사자들은 경기장과 선수촌 등지에 배치돼 활동할 예정이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호반그룹 "플라스틱 사용 줄여 환경 살립시다"



호반그룹 김상열(가운데) 회장과 임직원들이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에 동참하는 의미로 텀블러(tumbler)를 들어보이고 있다. (호반그룹 제공)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 동참 사내 머그컵·텀블러 사용 권장 견본주택 방문자 장바구니 선물
호반그룹의 김상열 회장과 임직원들이 릴레이 환경운동 캠페인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에 동참했다.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 캠페인은 일회용 컵 등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사진을 찍어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에 올리고, 다음 참여자를 지명하는 릴레이 환경 캠페인이다. 지난 해 세계자연기금(WWF)과 제주패스가 주관해 진행했던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 캠페인은 당초 목표로 삼은 해시태그 2만 건을 달성하

며 공식적인 활동이 종료됐다. 이후 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각계각층의 자발적인 참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김상열 회장은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의 취지에 공감하며, 임직원들과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호반그룹 김상열 회장은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챌린지에 동참했고, 다음 참여자로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과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을 추천했다.
한편, 호반그룹은 이미 사내에서 머그컵과 텀블러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건설계열 호반건설, 호반산업에서 아파트 분양시 지난 2012년부터 견본주택 방문객들에게 종이 쇼핑백 대신 장바구니를 배포하고 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동강대, 재학생 14명 홍보대사 위촉



동강대학교(총장 이만숙)가 최근 '2019학년도 동강대학교 홍보대사'를 위촉했다. 홍보대사 14명은 학교 고객만족센터에서 기본 매너 교육 등을 받고 올 한해 동안 활동하게 된다. (동강대 제공)

광주여대 화장품과학과 '조향사 특강'



광주여자대학교(총장 이선재) 화장품과학과는 최근 2주에 걸쳐 대학 무등관 1210호 강의실에서 교수학습지원센터 프로그램인 '조향사 특강'을 열었다. (광주여대 제공)

Advertisement for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We pray for the afterlife of our late loved ones). It lists names and dates of funerals for several individuals, including Shin 2nd floor VIP, Shin 2nd floor, Shin 3rd floor, and Shin 3rd floor. It also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funeral home.